

인류세

인류세 시대,
전염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범순

과학사를 전공하고,
KAIST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인류세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침묵의 봄을 경험하고 있다. 아침 새 소리는 더 맑게 들리는데, 등하굣길 학생들의 재잘거림은 사라졌다. 거리는 한산하고 다니는 차도 눈에 띄게 줄었다. 실로 오랜만에 미세먼지 알람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 공공의 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이삼십 년 동안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엔진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던 나라들도 ‘침묵의 여행자’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했다. ‘봉쇄’(lockdown)란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각국은 공항과 항구, 국경에서 여행객을 차단하거나 격리하는 정책을 폈다. 코로나의 희생자들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침묵 속에 고통과 슬픔은 탈개인화되어 숫자로 표시되고 그 숫자는 통계로 모인다. 그 통계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어, 도시, 지역, 국가별로 의료 인프라 수준과 정책적 대응 방식을 비교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 변화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우리는 추상화된 숫자와 그 그래프에 익숙해지고, 시공간상의 비교분석을 통해 걱정, 안심, 불만, 자긍심 등의 반응을 보인다. 위기상황에 집단화된 감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다.

작년 ‘기후 위기’를 걱정하며 거리에 나왔던 지구촌

인류세 시대,
전염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백만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은 잊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향한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가 이루어지 못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해내고 있다. 화석연료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유국 사이의 가격경쟁으로 산업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비행기 주차장이 되어버린 공항 사진이 상징하듯, 항공 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회사 대부분이 정부의 긴급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2015년 파리협약 이행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직장을 잃어 가까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먼 미래를 위한 그린(green) 정책은 허공을 두고 약속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전염병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팬데믹(pandemic)이 실업과 불황을 가져오고, 경기침체로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시현상만을 보아서 이들의 관련성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 만약 팬데믹의 원인을 동물에서 인간으로 건너온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찾는다면, 즉 생물학적 요인만을 고려한다면, 경제활동과 기후변화는 팬데믹과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역사에 새로운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안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는 인간-비인간, 생물-무생물, 자연-문화의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을 요구한다. 여기서 세 가지 위기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비인간

1947년에 출판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여준다. 책은 소설의 배경이자 1940년대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도청 소재지 오랑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이 도시는 주목을 끌만 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곳이며, 비둘기도 나무도 공원도 없는 “흉한” 곳이고, 봄이 오는 것조차 시장에서 파는 꽃바구니에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성적”인 곳으로 소개된다.¹ 이처럼 특색 없는 도시의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이 죽은 쥐의 등장이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외는 진료실을 나오다가 층계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밟았다. 그때에는 별생각 없이 발로 쥐를 옆으로 밀어놓고 계단을 내려갔다.”²

쥐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죽은 쥐를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은 흔치 않다. 그 날 이후 죽은 쥐의 수는 나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집주변 쓰레기통에서 서너 마리 발견되다가, 공장과 창고에서 죽은 쥐 수백 마리가 쏟아져 나오더니 며칠 사이에 사태가 악화되어 쥐들이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와 죽기 시작했다. 개천 바닥이나 하수구 근처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관공서, 카페, 공원, 산책로 등에 죽은 쥐의 수가 증가해, 시에서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뉴스가 보도될 정도였다. 그러자 거리에 고양이도 사라졌다. 죽은 쥐의 수가 8천 마리를 넘은 때를 정점으로 쥐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페스트』는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굴복”시키는 과정을, 진단을 담당한 의사, 환자 격리를 위해 시민 보건대를 조직한 봉사자, 환자와 사망자의 기록을 담당히 기록하는 공무원, 파리에서 잠시 방문했다가 발이 묶어버린 기자, 신의 섭리를 열심히 설파하는 신부 등,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려낸다. 죽음과 이별이 일상이 되고 봉쇄된 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카뮈는 극한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 진리나 영웅적 행동, 첨단 과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이 아니라, 말은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의 성실

성과 연대감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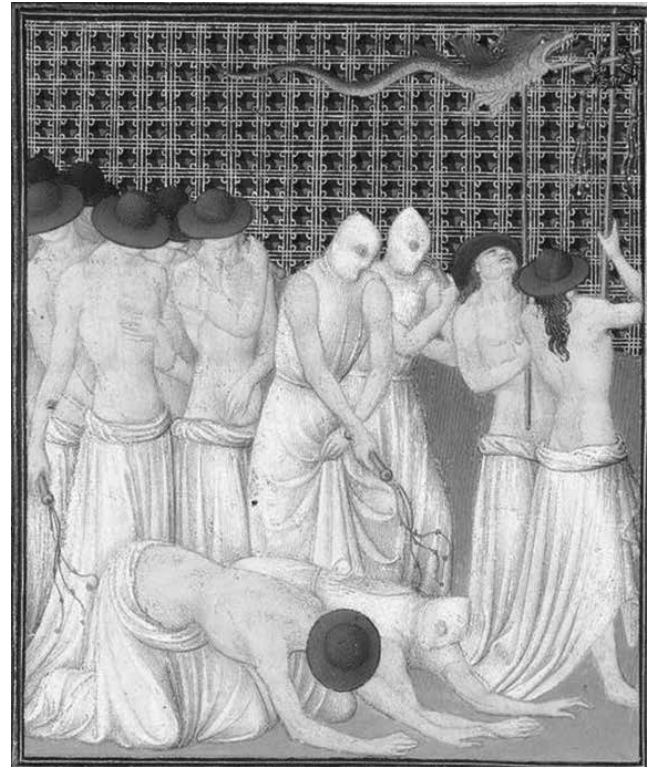
하지만 카뮈는 내러티브를 인간중심적으로만 끌어들이지 않는다. 첫 장면을 의사와 죽은 쥐의 조우로 그렸듯이, 중요한 전환의 모티브로 자연을 개입시킨다. 책의 중반부(제 3부), 페스트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려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감정만 존재할 때에 바람을 등장시킨다. “그해의 한가운데였던 바로 이 시기에 페스트에 휩싸인 그 도시로 며칠 동안 바람이 불었다. 그 도시가 세워진 고원에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바람이 거친 기세 그대로 거리로 들이닥쳐서 오랑 시민들은 특히 바람을 두려워했다.” 쥐가 페스트를 사람에게 전해주었듯이, 바람은 페스트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는 행위자처럼 그려진다. “지금까지는 도심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형편도 어려운 변두리 지역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갑자기 페스트가 바깥 다가와 상업지역에 자리를 잡은 듯했다. 주민들은 전염병의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고 바람 탓을 했다. 호텔 지배인은 ‘바람이 카드를 뒤섞어버린다’고 말했다.”³

카뮈는 여기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주민의 경제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위생 관념과 시설에 차이가 있기에 페스트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먼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카뮈는 사회적 불평등에 크

게 집착하지 않는다. 바람이 카드를 뒤섞어버리듯이, 유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주민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무의미해진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상대적인 비교에 위안을 얻을 뿐 큰 차이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비인간의 존재 앞에서 나약한 존재로 그려진다. 시간이 갈수록 이별의 고통은 비장감을 상실하고, 행복했던 날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추억 속의 환영조차 살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과적이었던 페스트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었다.”⁴

그러기에 페스트 환자가 크게 줄어들어 도시 봉쇄가 풀리는 날 축제 분위기를 전하는 소설의 마지막 두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기쁨에 젖어 있는 군중은 모르고 있지만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가구나 내복에 잠복해 있고,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는 알고 있다. 또한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페스트가 쥐들을 다시 깨우고, 그 쥐들은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⁵

카뮈는 페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페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언



‘편달 고행자의 행렬’(Procession of Flagellants)

15세기 초 프랑스 베리 공작에게 헌정된 책 『아름다운 시간들』(Belles Heures)의 표지 삽화. 편달 고행자는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기도하고 참회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6세기에 유행한 페스트를 묘사한 삽화 중 하나다. 여기서 수행자는 14세기 말과 15세기 페스트가 유행할 때의 장면을 이용해 그렸다고 전해진다. 오른쪽 상단의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 (사진 출처 - Wikimedia Commons : Samuel K. Cohn, Jr., “The Black Death: End of a Paradigm,” American Historical Review, 2002, 197(3): 703-738, 704.)

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페스트와 쥐와 인간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전염병은 용어보다 시간의 문제

카뮈에게 페스트는 은유였다. 이차대전을 겪으면서 목격한, 권력과 지식에 대한 과신,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집착, 파괴와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완전무결하며 순조롭게 기능하는 하나의 행정,” 이 모든 것이 페스트로 표현되었다.⁶ 여기에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자세와 연대 외에 다른 수단은 보이지 않았다. 카뮈는 질서 이면에 숨겨져 있는 폭력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겸손한 저항만이 세계전쟁의 반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다.

카뮈가 이 소설을 쓸 때는,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이른바 ‘세균이론’(germ theory of disease)이 이미 의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페스트를 일으키는 병원체도 실험실에서 배양·분리된 바 있었다. 19세

기 말 파스퇴르, 코흐 등에 의해 제안된 가설이 공고히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페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페스트』에도 도지사가 의사 몇 명과 만나 대책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 의사는, “문제는, 이 병이 페스트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의사는 “삶에서도 그렇지만 과학에서도 추측은 언제나 위험하며,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타구니의 합병증을 동반한 열병이라는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주인공인 의사 리외는 림프절 멍울을 절개해 분석 실험을 요청했는데, 연구소측의 분석에 따르면 페스트균 덩어리 같은 것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페스트의 전형적인 양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의사는 추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지만, 리외는 단호하게 말한다. “감염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확장 추세로 미루어볼 때, 질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경우 염려스럽지만 2개월 이내에 시민의 반 정도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페스트라고 부르는 성장열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절반이 사망하는 것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신중론을 퍼던

의사가 단도직입적으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죠. 이 병이 페스트라고 확신하시나요?”라고 하자, 리외는 간결하게 대답한다. “문제를 잘못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니까요.”⁷

전염병은 용어보다 시간의 문제라는 카뮈의 통찰은 예리하다.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지, 서로 다른 증상을 보일 경우 같은 질병인지 아닌지, 왜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피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은 의학적, 종교적, 문화적 수단을 동원해 설명하려고 애쓰는 한편, 확산을 줄이고 사망자를 처리하며 서로 위로하는 현실적인 일을 해야만 했다. 질병은 역사의 기록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사회 현상이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페스트는 여러 차례 유행했는데, 증상과 전파 방식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응을 마련해야 했다. 쥐와 같은 설치류 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인간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에서 인간으로 기침과 재채기에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일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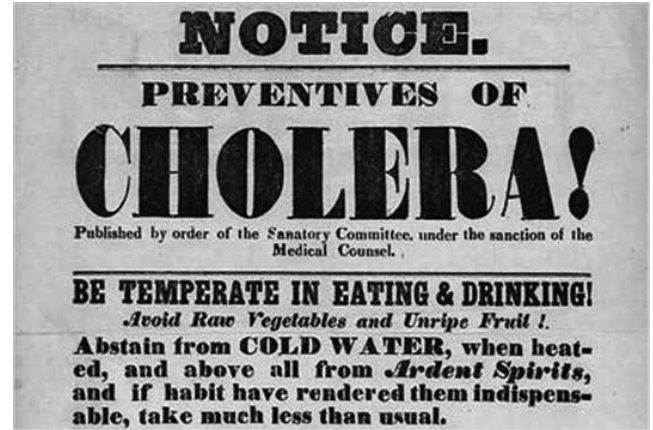
질병의 사회적 구성

질병을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정치구조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의학사 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세운 사람은 찰스 로젠버그이다. 그는 의학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콜레라 시대(The Cholera Years)』란 책을 통해 사회 속의 질병을 연구하는 사회사의 방법론을 개척했다.⁹ 이 책은 1832년, 1849년, 1866년, 뉴욕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콜레라 대유행을 다루고 있다. 각 시점에서 콜레라의 전조, 발생, 유행, 대응, 종결의 사이클을 분석하는데, 먼저 종교계-의료계-정치계로 구성된 사회의 지도층 사이에 존재하는 콜레라의 원인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나 드러난 갈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실제로 제시되는 기도나 단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 치료와 방역에 활용되는 의료의 수준, 뉴욕주 보건국(Board of Health)과 뉴욕시 위원회의 행정력이 여러 집단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집행되는지를 서술한다. 다시 말해, 세속화, 도시화, 이민자 증가, 계층분화와 같은 19세기 미국의 사회변화 속에서 콜레라라는 질병이 어떻게 구성되고 받아들여지는 보이고자 한 것이다.

로젠버그가 주장하려던 바는, “지식은 발견되는 것

이 아니라 협상되는 것이며, 지극히 인간적인 학문 공동체의 컨센서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 즉 ‘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¹⁰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의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협상 과정과 협상 당사자들의 선발은 권력과 특권의 더 일반적인 패턴을 반영하고 필연적으로 강화한다”는 점, 즉 지식의 구성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지식이 사회에서 가지는 권위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그는 암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질병을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의 작동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그 구성과정에 작동하는 복잡다단한 정치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면, 1832년에 의학계에서는 콜레라가 전염병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천연두나 황열병처럼 개별적인 특정 질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여러 질병이 섞여서 발생하는 것인지조차 논란거리였다. 애매한 방식으로 ‘나쁜 공기’(miasma)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1849년에 들어서도 콜레라의 원인과 전염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교회 목사는 여전히 병에 걸린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동 양식을 문제 삼았고, 의학계에서도 나쁜 공기 원인설은 대안 없이 쉽게 버릴



1849년 뉴욕시에서 유행한 콜레라를 경고하고 간단한 예방법을 설명하는 포스터다. 이전에 있었던 1832년 콜레라 대유행에서는 뉴욕시 인구 25만 명 중 3500명 이상 사망했고 (현재 뉴욕시 인구 8백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상자 10만 명 이상인 셈이다),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1849년엔 희생자가 5천 명이 넘었다. 그러나 1866년 대유행 때에는 사상자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진 출처 - 뉴욕타임스 : John Noble Wilford, "How Epidemics Helped Shape the Modern Metropolis," New York Times (April 15, 2008) <<https://www.nytimes.com/2008/04/15/science/15chol.html>> (2020. 5. 1 접속))

수 없었다. 다만, 콜레라가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기 속 나쁜 성분은 '이동 가능'(portable)하기에 쉽게 확산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도 생겨났다. 따라서 분노를 처리하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설립하는 위생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66년이 되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에 기반해 콜레라가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뉴욕시는 광역 보건국(Metropolitan Board of Health)을 설립해 하수시설과 공기정화를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위생 상태 개선을 도모했다.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 콜레라 사망자 수가 1849년과 비교하여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서가 아니라 통계를 기반으로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이 밝혀져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학의 승리'라기 보다는 '공중보건의 승리'였다. 콜레라가 미생물에 의한 질병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1883년 로버트 코흐에 의해 밝혀졌지만, 생물학적 이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도 사회에선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했던 것이다.

전염병의 이동성과 제국의 팽창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동성(mobility)에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방역정책을 세우는 데에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인류 문명 속에서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1911년대에 이어 1921년에 만주에서 페스트가 유행하자 국제역학조사팀이 구성되어 전파경로와 매개체를 찾는 작업을 했다. 그들은 1890년대 러시아 남부 돈강-볼가강 지역에 있었던 페스트 사례에서 땅굴을 파고 살아가는 설치류 동물들이 병을 옮기는 주범임을 보인 연구에 주목하고, 만주에서도 설치류가 감염의 원인 제공자임을 밝혀냈다. 특이한 점은 설치류 중에서 비교적 몸집이 큰 마멋(marmot)이 병을 옮겼다는 사실이었다.¹¹

왜 마멋일까? 만주와 러시아 남부, 두 지역의 페스트 유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역사가자 윌리엄 맥닐(William H. McNeill)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Plagues and Peoples)』에서 전염병을 국소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국가 간, 지역 간 정치경제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페스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멋은 흥미로운 단서가 되었다. 이 동물의 가죽은 국제시장에서 좋은 값

에 팔리기에 경제성이 있었는데, 마멋이 사는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에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불문을 또는 터부 같은 것이 있었다. 마멋은 절대로 밟을 놓아 생포하지 말고 반드시 총을 쏘서 잡을 것. 잘 움직이지 못하는 놈은 만져서는 안 되며, 마멋이 집단으로 병에 걸린 것 같으면 바로 텐트를 거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마멋으로부터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통지식이 유목민들에게 있었다. 하지만 1911년, 청나라가 제국으로서의 위세를 거의 잃어가고 있을 때, 중국인의 만주 이주에 대한 정부규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지역 전통을 무시하고 마멋 사냥에 뛰어들어 페스트에 걸려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설명이다.¹²

맥닐은 마멋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19세기 말에 크게 유행한 페스트를 분석할 방법을 찾았다. 이것은 원래 1855년 중국 서남부 윈난(Yunnan)성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국 내륙지방으로 퍼져나가다가 1894년 홍콩에서 크게 유행하고 봄베이,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전 세계 항구도시에 급격히 확산한 사례를 말한다. 여기서 맥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냈다. 페스트는 원래 중국과 인도 사이의 히말라야 지역의 풍토병이었는데, 이 근방에서 시작해 중국을 거쳐 버마를 지나 태국으로 흐르는 살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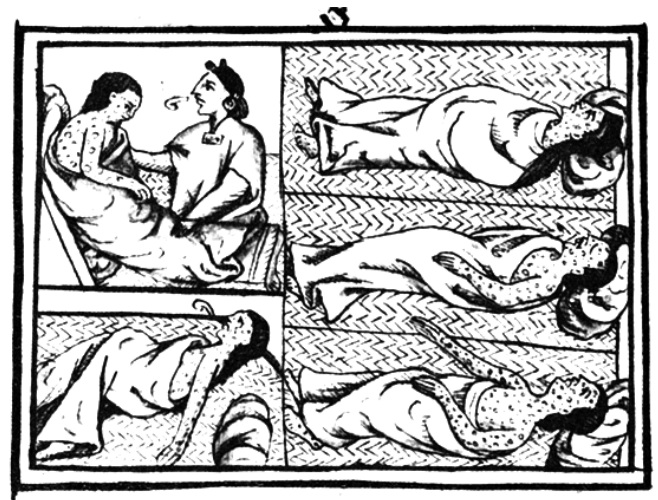
(Salween river)의 상류 부분을 경계로,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지식이 지역 주민에게는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윈난에서 폭동이 일어나 이를 진압하고 반역자를 쫓는 과정에서 중국 부대가 살윈강을 건너와 페스트에 걸렸고 결국 이들이 중국에 돌아가서 페스트를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맥닐은 19세기 말 페스트 대유행과 20세기 초 만주에서 발생한 페스트의 발생, 전파, 영향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 세계에 거의 동시다발적인 대유행이 가능하기 위해선 전파의 속도가 중요한데, 1870년대에 등장한 증기선 네트워크가 이를 가능케 했다는 점. 둘째, 증기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진 쥐와 거기에 기생하는 벼룩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설치류 동물들도 페스트에 감염시켰다는 점. 셋째, 지역의 오래된 관습과 전통을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는 외부인이 정치·경제·군사적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페스트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런 다음 맥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4세기 페스트 대유행이 몽골 제국의 팽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6세기 교황 그레고리오 1세 때 유행한 페스트(Gregory the Great's plague, 541-542) 이후 교회 자료에

페스트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76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다가 1346년 이후에 다시 나오기 시작해 그 이후론 계속 기록이 있다. 맥닐은 외세의 침략과 같은 극적인 사건 없이 이처럼 550년이 넘는 공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논지를 폈다. 또한, 몽골 군대가 1252-53년 중국 원난과 버마를 침략한 사실을 근거로, 히말라야 지역의 설치류 동물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몽골 기마인들을 감염시키거나 식량 주머니에 편승해 스텝 지역으로 이동한 후, 그 지역의 설치류 동물들을 페스트에 감염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추론했다. 물론 물증은 없지만 19세기 페스트의 확산 요인과 패턴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명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14세기 페스트 대유행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몽골 제국의 정치·군사·경제 활동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¹³

한 걸음 더 나아가, 맥닐은 인류의 역사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역사는 두 가지 형태의 ‘기생’(parasitism)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 형태는 인간과 미생물 사이에 존재하는 ‘미시기생’(micro-parasitism)이다. 미생물이 인간의 몸에 침투해 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체내에 면역반응을 일으켜 역공을 받기도 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다



아즈텍(Aztec)과 나후아(Nahua)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장서인 <Florentine Codex>의 한 패널이다. 천연두에 걸린 환자를 묘사하고 있다. (출처: 위키미디어)

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으며,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함께 지낼 수도 있는 관계를 말한다. 다른 형태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관계, 그리고 인간 집단 사이에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시기생’(macro-parasitism)이 있다. 거시기생의 극단적 형태로 전쟁, 식민지 약탈 등을 들 수 있다.¹⁴ 맥닐이 제안한 가설의 핵심은 거시기생과 미시기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몽골 제국의 팽창과 페스트 대유행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16세기 스페인이 소수의 군대로 라틴아메리카의 아즈텍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천연두에 오염된 모포 선물 덕분이었다는 것도 미시-거시기생의 상호작용을 보이는 사례로 제시한다.¹⁵

19세기 콜레라 유행도 맥닐의 가설이 잘 들어맞는다. 콜레라는 인도 벵갈 지방의 풍토병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 창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1817년 캘커타에서 발생하던지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영국이 새로 만든 교역로와 군대 이동 경로를 따라, “콜레라가 과거의 확산 범주를 벗어나 면역도 없고 대처할 관습조차 없는, 새롭고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퍼져가게 된” 것이다.¹⁶ 콜레라가 새로 창궐한 곳에서는 실제로 영국 배와 군인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맥닐은 콜레라 유행을 제국의 팽

창과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군이 1816년과 1818년 사이 인도의 북쪽 지방에 파견되어 아프가니스탄과 네팔의 적군과 싸울 때 콜레라를 전파했으며, 1820년과 1822년 사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을 방문한 영국 선박은 어김없이 콜레라와 함께 갔다. 조선에는 이때 육로를 통해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다.¹⁷ 얼마 후 1826년에 극심한 콜레라가 벵갈에서 창궐해 예전부터 있던 경로를 따라 러시아 남부에 전해졌는데, 러시아가 마침 페르시아(현재 이란 지역), 터키와 전쟁을 하고, 폴란드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군사이동 경로를 따라 콜레라가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마침내 1831년에는 발트해 연안 국가를 거쳐 영국과 아일랜드로 확산되었다. 산업혁명기 공장이 모여 있고 값싼 노력을 제공하던 빈민계층이 있는 지역은 위생 관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곳에서 배설물과 오물이 넘쳐나 콜레라가 번창하기 좋은 환경이었다.¹⁸ 여기서 캐나다를 거쳐 미국 뉴욕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인류세 개념은 ‘멸종,’ ‘균열,’ ‘파국’ 등 위기 담론 속에서 태어났고 발전했다.¹⁹ 땅, 하늘, 물 모두 위기 상황이고, 생물다양성도 위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며, 이것들의 총체인 지구시스템도 그 미래를 낙관만은 할 수 없게 되었다.²⁰ 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우리’인데, 누가 ‘우리’이고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끝도 없는 논쟁만 하면서 위기 담론만 계속 재생산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경제 위기가 뒤따랐다.

기후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추상’적 개념이라면, 『페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외가 벌이는 ‘추상’과의 처절한 투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리외는 고통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추상’처럼 단조로운 페스트에 대항하는 자신도 무관심으로 가득 찬 ‘추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추상’과 투쟁하기 위해선 스스로 ‘추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한다. 그의 결론은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인간은 추상화된 관념이 아니며, 페스트도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그에게 실재가 실재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정실성’이고, 목적은 단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질병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로젠버그와 맥닐의 차이는 크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로젠버그는 지식의 구성과정에 들어 있는 권력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다. 즉, 어떤 지식을 생산했는지의 문제만큼, 왜,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위기 담론에서 나올 수 있는 지나친 일반화 또는 추상화의 문제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명사적 입장에서 질병을 이해한 맥닐은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방법론적 질문을 던진다. 인류가 겪은 전염병 유행에서 우연은 없기에, 역사가의 중요한 책무는, “왜, 그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냉전 이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 형성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할 글로벌화와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화, 인간 식생활의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 19’의 전염병의 빠른 확산은 화물 및 여행자의 국가 간 이동이 많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바이러스 전염이 동물을

통해서 시작되는 만큼,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자연 파괴, 공장식 축산의 확대, 온난화, 바이러스의 활성화 등, 기후 위기와 전염병 위기, 이로 인한 경제 위기가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²¹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사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와 함께 ‘우리가 자연’이라는 인류세적 관점이 아닐까.

1

알베르 카뮈, 『페스트』, 유호식 옮김 (문학동네, 2015), p. 11.

2

위의 책, p. 16.

3

위의 책, pp. 199-201.

4

위의 책, p. 213.

5

위의 책, pp. 360-361.

6

카뮈, 『페스트』, p. 212.

7

위의 책, pp. 64-67.

8

인체실험을 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의 만주 731부대는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자 세균전을 펼쳤는데, ‘페스트 벼룩’을 항공기에서 살포하기도 했다. 15년전쟁과 일본의 의학의료연구회 (역음),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하세가와 사오리, 최규진 옮김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20). 최근 한 역사학자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페스트와 19세기, 20 세기에 발생한 페스트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Cohn, Jr., “The Black Death.”

9

Charles E. Rosenberg, The Cholera Years: The United States in 1832, 1849, and 186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987). 이 책에 관한 내용은 필자가 『한국과학사학회지』, 2020년 봄 호에 실은 서평에서 일부 가져왔다.

10

위의 책, p. 237-238. 본인의 견해는 1987년 판에 새로 추가한 ‘후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11

William H. McNeill, Plagues and Peoples (New York: Anchor Press, 1976), chapter 4.

12

위의 책, pp. 137-138

13

위의 책, pp. 132-147.

14

위의 책, pp. 5-13. 맥닐의 책은 질병을 문명의 관점에서 보고, 문명을 질병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면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1997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도 맥닐의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5

위의 책, 제5장.

16

위의 책, pp. 230-233.

17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pp. 21-35.

18

McNeill, Plagues and Peoples, pp. 233-234.

19

예를 들어, Elizabeth Kolbert, The Sixth Extinction: An Unnatural History (New York: Picador, 2015); Clive Hamilton, Defiant Earth: The Fate of Humans in the Anthropocene (Cambridge: Polity, 2017); 김홍중, “과국과 패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연구』 2019, 9(3): 1-52.

20

지구시스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Will Steffen et al.,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8, 115(33): 8252-8259.

21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다. 우한시 야생동물 시장에서 파는 박쥐를 통해 퍼졌다는 가설이 가장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천산갑(pangolin)이 숙주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다. 최근에는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관리를 잘못해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소적 사건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맥닐이 제시한 것처럼 이를 세계사의 흐름에서 보면 인간의 활동 증가로 인한 지구의 변화와 삶의 조건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